

치 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의 첫날에,
난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사부대중이
부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흔치 않은 요즘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러한**

**뜻 깊은 법회가 10회를 맞이한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여기 모인 대중들의
실천행원 덕분이라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장보살은 일찍이 중생 구제의 대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열 번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의 불국토를 흠모하여 많은 선근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향할 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여 중생을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중생의 고통이
없는 정토에 이르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장보살을 본받아
자비심을 실천하고자 모였습니다.
내 아픔은 큰 것 같지만, 남의 아픔은
안보이고, 내 탓은 없지만, 남 탓할
것은 잘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 구절의 경구를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행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각인하여 나눔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천안함 침몰로 산화한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지만
전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 것은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보살심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
니다. 고귀한 넋들이 고통과 갈등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며 그간
300여 명의 환아에게 2억 2천여 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여 보살행을
실천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특별히
금번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제8교구
본사 직지사와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며 흘리는
땀 방울이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소중한 자비행임을 되새기며 정진하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운 발원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무량공덕이
난치병의 고통으로 시름하는 환아들과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회향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